

빈손의 전능함

본문: 창세기 28:1-9

유튜브: https://www.youtube.com/live/Y2BtblpanTI?si=LC_BYs84YJSCAAAtX (주소 클릭-> 열기 클릭)

[새벽 말씀 묵상]

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마침내 받아냈습니다. 하지만 그의 현실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입니다. 당장 손에 쥘 것은 지팡이 하나와 초라한 빈손뿐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빈손으로 척박한 광야에 내몰려야 했을까요? 치열한 생존 경쟁과 세상의 냉정함 속에서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두렵고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.

이삭은 도망치는 야곱에게 세상의 자원 대신 '전능하신 하나님(엘 샤다이)'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. **내 힘과 자원이 완전히 바닥난 그 빈손의 자리야말로,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진짜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.** 에서 는 잃어버린 축복을 만회하기 위해 인간적인 처세술로 빈손을 채우려 했지만, 그것은 헛된 종교성에 불과했습니다. 빈손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,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.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외로워하고 계십니까? 고립감과 결핍의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. **우리가 움켜쥐었던 헛된 힘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, 비로소 우리의 빈자리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.** 오늘 하루, 내 손에 든 것을 과감히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. 여러분의 텅 빈 손 위에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덮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

[말씀 관찰]

1.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며 어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까? (창 28:3)
2. 에서 는 자신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깨닫고 스스로 결핍을 채우려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? (창 28:8-9)

[삶의 적용]

3. 나는 내 삶의 결핍과 고난을 마주할 때 인간적인 처세술로 채우려 합니까,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(엘 샤다이)을 온전히 의지합니까?
4. 내가 쥐고 있던 헛된 힘을 내려놓고,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전능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빈손의 영역은 무엇입니까?

[오늘의 기도]

"주님, 내 손에 쥐고 있던 헛된 처세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, 나의 빈손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 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.